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고 빛내여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주체의 최고 성지에 뜨겁게 굽어졌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전투적로정에서 중대한 역사적계기로 되는 특별강습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적에지가 빛발치는 새시대 당건설강령을 받아안은 남다른 영예와

크나큰 걱정에도 불구하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송엄히 들어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 참가자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시대와 력사우에 떠올리시고 조선로동당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대계의 조직사상적초석을 다져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참가자

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전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비상한 각오와 신심에 넘쳐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진입하게 됨을 삼가 아뢰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무상의 신임과 영광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전당강화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력사적투쟁행정에서 당의 심장부서, 신경부서 일군으로서의 전투적사명과 핵심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을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강위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가 7월 2일부터 6일까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별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습회장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력을 지닌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주체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고 우리 혁명의 새로운 역사적단계에서의 당조직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밝힌 강령적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이 모든 방면에서 시련과 도전을 정면돌파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가는 중대한 단계에 들어선 오늘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훌륭한 현실로 전환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해당 지역과 단위의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 령도술에 달려있으며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조직부의 기본기능인 당생활지도 지도의 탄력을 보장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생활지도는 당활동에서 기본이며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을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는 체계는 전당을 움직이고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

하기 위한 당중앙의 기본령도선, 기본지도선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조직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보장하고 우리당을 기초와 기층이 굳건한 조직적전일체로 만들며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당생활지도부문의 책임적인 사명과 역할의 중요성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부각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을 강화하자면 당조직부가 언제나 기치를 들어야 하며 그 기수는 바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건설에서 내세우는 요구이고 원칙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년간 당안의 부서들과 부문들의 당사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러 대회와 부문별강습회들을 진행한데 이어 이번 강습회를 특별히 품을 들여 소집한 취지에 대하여 밝히시면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사업능력을 높여주는것은 우리 당을 전도양양한 혁명적인 당으로, 전투력있는 사회주의집권당으로 강화하는 로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이며 혁명적인 공적으로 되며 여기에 특별강습회의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시기 당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사업이 당중앙의 요구와 의도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는 실태와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시고 우리당 특유의 당생활지도체계를 부단히 강화하는데서 당생활지도부문이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와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 부문 일군들을 재무장시키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과 정치의식을 제고시키자는것이 이번 특별강습회를 조직한 당중앙의

목적이며 우리 당의 강화에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결론에서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기본임무와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요 4대원칙과 6대과업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생활지도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비롯한 당정책관철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는데로 지향되어야 하며 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당의 대중적지반을 다지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조직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부단히 사업방법을 개선하며 결백한 투쟁품성과 작풍을 배양하는데서도 마땅히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과 령도술이 몸에 배인 진짜배기혁명가, 참된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의 기치를 곳곳이 고수하고 우리당 투쟁강령의 성공적인 실행에 당조직과 대중을 완강히 결연하여야 할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의 책임과 임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당생활지도부문의 전투력이자 조직부의 전투력이고 우리 당의 전투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강습회참가자들이 성스러운 우리 당의 위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다해나가기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명하시면서 모두가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력을 위하여, 위대한 인민의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더욱 결결하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사업총화보고를 제기하였으며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특별강습회 폐강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동된 열의속에 특별강습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이번 강습회는 조선로동당 특유의 당생활지도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력을 비사히 높이고 당사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것으로 하여 우리 당건설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각급 당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이 우리 당을 강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조직들을 당정책관철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데서 기본건ingi,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특별강습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은 당당단위에서 당정책을 얼마나 실속있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자기의 당성과 함께 실력이 평가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하여야 하며 항상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리각하여 모든것을 투시, 진단하

고 처리해나가며 강한 장악지도력, 투쟁력으로 당당단위 사업의 발전과 당결정집행의 완결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철칙으로 견지하여야 할 중요문제들을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활동성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당원들과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 발양시켜 현 난국을 돌파하며 앞으로 더욱 용감하게, 기세차게 전진하려는것이 당중앙의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각급 당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들은 담당지역과 단위들에 대한 당중앙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제일핵심이 되고 당정책관철에 당조직들을 힘있게 조직발동하는 유능한 정치일군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칠것을 엄숙히 맹약한 혁명가들인 우리 당일군들이 자기의 중대한 력사적사명과 본분을 자각하고 투신력을 발휘하며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때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다 해도 대중의 신심과 기세는 백배해질 것이며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비약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강습회참가자들이 당중앙의 뜻과 구상에 사고와 행동을 일치시키고 전당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지키며 새로운 각오와 굳센 의지, 참신한 기풍으로 당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일군 특별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태양

산을 봐도 들을 보아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강산에 차넘치는 7월.

송업한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을 불러볼 때면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이 땅위에 위대한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수놓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인자하신 영상이 눈앞에 어려온다.

로동자들의 기름뿜은 손을 잡아 주시며 그들의 수고도 헤아려 주시고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로 의논해 주시던 아버지수령님.

학교를 찾으시어 새 교복입은 학생들을 자신의 앞에 세워 한평생 기림사신도 친히 찍어주시며 오랜 시간을 바치시었고 때로는 로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던 자애로운 모습도 인민의 마을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한평생 인민들속에 사시었고 그들과 고틱을 같이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정을 강그리 부여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다.

반만년민족사에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바라던 인민사랑의 참다운 정체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 땅에 현실로 꽃피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피어린 항일투쟁의 그날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항일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것처럼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위하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수령님이시였기에 유격구에 처음으로 세운 정전도 인민혁명정전이고 해방후 처음으로 발포한 범평도 땅을 가지고살아하는 농민들의 속원을 풀어준 토지개혁법령이었다.

인민과 고틱을 함께 하고 인민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는데가 바로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이었다. 그이께서 인민들과 고틱을 어떻게 함께 하시였는가를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가림처럼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최고사령부식당을 돌아보시고 일군들에게 인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하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최고사령부 일군들은 물론 나도 여기에서 레어로 될수 없다고, 지금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을 하느라고 우리 인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식량이 부족하여 잡곡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있다고,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



로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 50(1961)년 4월

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그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삼촌 김형욱선생이 최고사령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맨 조밥에 시래기국, 김치 한보시기가 전부인 밥상을 받고 무척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장군께 달렸는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밥맛 없이 무리하다가 신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단 말인가. ...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미국놈들과 싸우느라고 허리

머를 졸라매고있는데 우리라고 따로 백미밥을 먹어서야 되겠는가고, 언제나 인민과 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하고 밤맛도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미밥을 드신다고 누가 닦아라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고틱을 함께 나누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으신것이다.

바로 이런분이시기에 전후 자신의 저력도 평양시에 새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인민들의 집들이 한창

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지난 5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총련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에서 전체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사랑의 축하문을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재일동포들의 행복한 앞날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고 하시었다.

그 구절을 되새겨볼수록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인 주체83(1994)년 7월 7일 총련지부일군대회에 친히 축전을 보내시어 전체대회참가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주시던 위대한

재일동포들이 오늘도 전하는 사랑의 전설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이 송엄히 안겨온다.

일찌기 10대의 어린나이에 이국살이의 설움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이역에서 고생하는 재일동포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친부모보다 더 뜨겁고 다심한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12월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속에서도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공개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었다. 그것은 목결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재일동포모두를 새 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시려는 철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결

정체였다.

재미미박에 남지 않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사랑의 전통을 마련하여주시는분도,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대이동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총련의 년대기에는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해 배운 베푸신 아버지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1973년 9월 공화국창건 25돐경축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은 조국으로 오는 길에 유럽의 한 나라를 경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때마침 추위가 들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어던 주체44(1955)년말에 가서야 승진해주시였으며 그나마 집을 조선택으로 소박하게 짓도록 하시였었다.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삼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의 불행과 고틱을 그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시었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솔선 헌신하시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 얼마나 휴식도 잊으시

되었다.

그 일행중에 생일을 맞는 상공인이 있다는것을 아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해당 나라 주체 대표부들에서 생일상을 잘 차려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조치에 의해 하루동안에 생일상을 세번이나 받은 그 동포상공인은 일생 받을 생일상을 오늘 다 받았다고 하면서 생일상의 눈물로 웃음을 적시었다.

이 세상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평범한 해외동포상공인의 생일까지 헤아려 이토록 사려깊은 은정을 베풀어준 령가 있었던가.

노래가사에도 있듯이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은 진정산이나 바다에 비길수 없이 크나큰 사랑이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속에서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며 삶의 자욱을 뚜렷이 이로써겨울수 있었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영원히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이역의 아들딸들은 아버지수령님그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한 소녀의 대답

1970년대초 제3차 북남적십자회담을 위해 평양에 왔던 남조선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때 만수대원대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10대의 소녀에게 한 대표단성원이 말을 걸었다.

《학생, 저 동상받침돌의 무게가 얼마나 되죠?》

소녀는 세월같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또랑 또랑하게 대답하였다.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동상받침돌의 무게는 북남 5천만민족의 심장을 합친 무게와 같습니다.》

소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오늘날도 전해지는 명답중의 명답이다.

청년대학생의 도로

1990년대중엽에 어느 한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주체사상함을 참관한 대표단성원들은 저저마다 아이하게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전망대에 올라 아름다운 평양시의 경관을 부감하고있었다.

이때 한 대표단성원이 전망대에 올라온 청년대학생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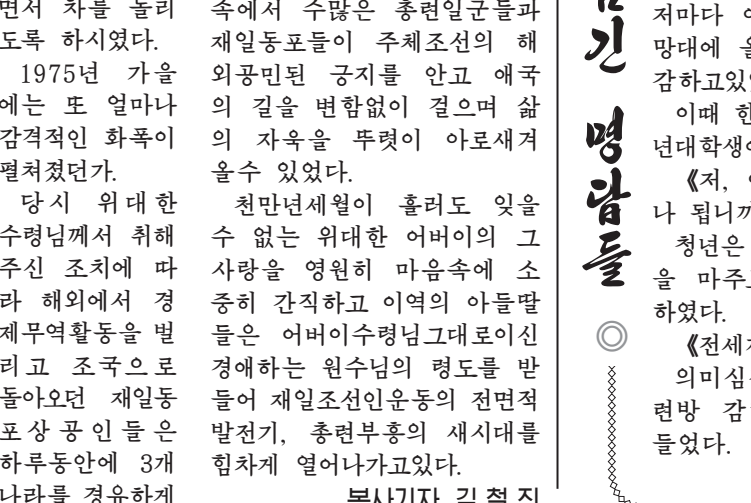
《저, 이 주체사상탑의 높이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청년은 의미깊은 눈을 들어 대표단성원을 마주보다가 자기의 심중을 담아 대답하였다.

《전세계 인류의 리상의 높이입니다.》

의미심장한 청년의 말에 대표단성원은 런방 감탄을 터치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본사기자 리경월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불멸의 글밭

력사의 땅 판문점에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통일
애국의 뜻을 전하는 친필비
가 서있다.

《김일성
1994. 7. 7.》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
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남기신
마지막친필!

이 글밭에는 1994년 7월
7일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
들여있다.

산새들도 아직 잠에서 깨
지 않은 어둠새벽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집무실창가로
는 불빛이 호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
인 부피두툼한 문건을 번지
시며 깊은 사색에 잠겨계셨
다. 그 문건은 반세기를 가
까이하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갈무리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남북최고위
급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담
겨져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민족의
속원인 조국통일의 전환적국
면이 열릴 전야에 무거운 책
입감을 안으시고 어떻게 하
면 북한최고위급회담을 성과
적으로 치르도록 할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문건
을 한페이지씩 번지시고 다
들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
는 문건의 마지막페이지를 넘
기시었다. 그러시고는 펜을 드
시어 미구에 도래할 중대사변
의 시각을 예감하시는듯 겨
레의 마음을 담은 무게로 그
문건을 힘주어 쓰시었다.

비록 아홉 글자밖에 안되
지만 그 글밭에는 조국통일
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아버지의 한생
의 업적이 깃들여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
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
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
게 인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
을 전민적운동으로 강화발전
시키신 아버이수령님이시
었다.
해방직후 내외분열주의세력
들에 의해 남조선에서 《단
선선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
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
신분도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나

《두개 조선》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
카롭게 벌어졌던 시기에 분열
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
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
한 투쟁으로 한 겨레를 불리
일으키신분도 수령님이시
며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
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
고 남북사이에 공동성명과 합
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
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
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
었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에서 싸
울 때도 잠을 재대로 자지 못
했지만 지금은 나라를 통일
시키지 못해서 못자고있다고,
나도 통일이 된 다음에는 밀
렸던 잠을 한번 꼭 자보려고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며 오
로지 겨레의 속원인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하실수 있는 모

든것을 다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
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조국통일3대헌칙과 전민적
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
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
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그 실현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분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시려는 일념에서 판문
점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아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을 새
긴 비를 세우도록 해주시었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시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친필비앞에
오래도록 서계시면서 일군들
에게 우리는 수령님의 념내대
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
야 한다고,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
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
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결연히 언급하시었다.
이렇듯 아버이수령님의 조국
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받아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두차

레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
이 마련될수 있었고 우리 민
족끼리를 리념으로 하는 격
동과 환희의 6.15통일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
고있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
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을 찾
으신 그날 한평생 나라의 통일
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억하시
면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
원을 기어이 실현하실 철석
의지를 가다듬으시었다.

그 의지는 그대로 이 땅우
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낳게 하
였으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
을 펼쳐놓게 하였다.

오늘 우리 겨레의 조국
통일위업은 안팎의 분열주
의자들의 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을 받고있
지만 겨레는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고 통일진군을 다그
쳐가고있다. 그것은 민족의
존엄이고 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
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아버이수령님께서 남기신 불
멸의 글밭을 가슴깊이 간직
하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조국
통일의 새날을 반드시 안아
오고야말것이다.

리문혁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주체80(1991)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방문한 세계평화연합 총
재 문선명선생을 만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총재선생과 이렇게 만나 낮
을 익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숙해지
게 된것자체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이라
고 하시었다.

문선명총재는 위대한 수령님께 조국통일을 위하
여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말씀올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진정어린 말을 들으
시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1972년에
남측과 함께 발표한 7.4공동성명의 3대원칙 즉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해
결되어야 한다고, 특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는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사상
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는것이 중요하
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두사람이 단결하면 그 힘이
한사람의 힘보다 더 클것이며 이렇게 전체 조선
민족이 단결하면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강조
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하루

주체83(1994)년 7월 7일이였다.

조국통일문건을 검토하시고 역사적인 친필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밤에는 또 밤대로
휴식도 없이 사업을 계속하시느라 때늦은 식사
마저 들지 못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를 우려하며 식사를 좀 드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
서는 어쩔지 밥상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일
을 더 하느라 밥상각이 나왔지라고 하시고는 계속
정력적으로 사업을하시었다.

일군이 다시금 감정을 울렸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고탐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
가 인민을 위하여 밤새워 일하는것 보면 잠도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80여명의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있었다. 문건을 보시고 전
화를 하시고 또 문건을 보시고...

한평생 조국통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토
록 마음쓰신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
지막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사향가》에 어려오는 크나큰 애국의 세계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겨레의 가
슴마다에, 이 나라의 산에
도 들에도 깔리며 차고넘치
는 7월.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그 미소를 그려볼 때면 사람
들의 귀전에 울려오는 한편
의 노래가 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신편 말씀 아귀에 쟁쟁해
...

유순한 선물에 조선민족의
정서를 담은 《사향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그
토록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
시던 노래.

이 노래는 아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친히 창작
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나날 《사향가》는 정
말 잊을수 없는 노래라고,
우리는 산에서 노래를 부
르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더
욱 뜨겁게 간직했고 그 노
래에서 힘을 얻어 일제놈들
을 용감히 쳐부셨다고 교시
하시었다.

나서자란 고향과 사랑하는
는 조국선전에 대한 사무치

는 그리움과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으려는 의지가
런마다 흘러넘치는 《사향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이 노
래를 가슴깊이 새기시고
항일무장투쟁의 기나긴 세월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불멸의 자욱
을 새기시며 강도 일제를 무
찌르시었다.

잊지 못할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등불가에서 그
려보신것은 단순한 고향 만
경대만이 아니였다. 아름다
운 만경대와 더불어 안겨오
는 삼천리조국강산이었고 일
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는 겨
레의 모습이었다. 달밝은 밀
영의 밤 유격대원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속에 더욱 굳
게 자리잡은것은 울밀의 봉
선화처럼 시들어가는 겨레에
게 기어이 재생의 봄을 안겨
줄 불타는 의지였다.

대동강을 아름다운 만경대
의 불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은 겨레가 기쁨과 환희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불렀던
해방의 아침은 이처럼 조국

사랑, 겨레사랑을 불태워주
는 《사향가》의 노래선과
더불어 뛰어왔다.

어찌 항일대전의 나날에만
울렸으랴.

해방된 새 조국강산에서
도,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무
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
와 독립, 인민의 귀중한 생
명재산을 지켜내기 위한 가
렬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에도, 전후복구건설과 사회
주의건설의 나날에도 높이 울
렸던 《사향가》였다.

전화의 나날 공화국영웅,
모범전투원들을 최고사령부
로 부르신 아버이수령님께
서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노
래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
들의 간청에 항일의 나날
에 즐겨 부르시던 《사향가》
를 부르시었다.

그 노래는 피로써 찾은 내
나라, 귀중한 우리 인민을
목숨바쳐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와 멸적의 의지를 더욱
굳세게 해주며 조국의 산발
과 천리전선으로 끝없이 메
리쳤으며 용사들을 조국수호
성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
는 힘과 용기로 되었다.

오늘도 아버이수령님께
대한 모든것은 그리움을 더
해주며 인민의 마음속에서
울리고 또 울리는 《사향가》.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깊은
회억에 잠기시어 《사향가》
를 부르시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어려오나.
우리 수령님 즐겨 부르
시던 노래.

이 노래를 부르시며
아버이수령님 회억하시었
으리라.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해
바쳐오신 자신의 한생애.
은 겨레와 세인이 청송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의 한
생애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을 다 바치시고 통일의 길에
크나큰 업적을 쌓으신 애국
애족의 불멸한 투쟁사도 력
력히 새겨져있다. 통일이 되
면 10년은 더 젊어질것다
고 하시며 언제나 조국통
일을 생각하고 민족분열의
고통을 당하는 겨레에게
기어이 조국통일을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위대한 생
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커다
란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
신 수령님이시었다.

정령 날이 가고 해가 바
뀌
수록 민족의 아버이의 위
대한 애국애족의 세계는
《사향가》의 선율과 함께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며 조국청사에 길이 전
하여지고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7월의 대지에 곱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온 나라의 방방곡
곡에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
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
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차넘쳤다.

지리리 천대받고 억눌렸던
인민을 땅의 주인, 공장의 주
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
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사
회주의조선을 일떠세워주
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부강번
영과 인민의 행복, 민족의 통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를 찾아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추진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
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
가 인사를 드리었다.

만수대동상을 찾은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선생은 《우리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
세워주신 그 은정, 저희들을
조국통일전사로 내세워주
신 그 믿음은 더없이 소중하
였기에 우리들은 적구에서도
자기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울수 있는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뵈옵고나니 또다시 새 힘이
솟는것만 같습니다. 내 남은
여생을 경애하는 총비서동
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
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
는 길에 아낌없이 바쳐가
겠습니다.》라고 마음속세를
파력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
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유성
은 《만수대동대에 오르니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해 마
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
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나라가 분열된 첫시기부
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
날까지 우리 인민들에게 통
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
하

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
치시였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
국의 뜻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조국통일사상과 로
선을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일
떠세우기 위해 자신의 작은
힘이나 바쳐가겠습니다.》라
고 말했다.

만수대동상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
리며 결의를 다지는 사람들
의 성령과 나이는 각이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
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
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
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
떠세우려는 불같은 열의가
맥박치고있었다.

만수대동뿐 아니라 수도
와 지방의 모든 곳에서 민
족의 아버이에 대한 사무치
는 그리움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남녘으로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
였다.

강철남



반전전망이 마귀판권이 전전전전

최근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공중과 해상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연합훈련들에 매달리다 못해 연합훈련까지 벌이며 대결각기를 부리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지난 6월에만도 일본 오키나와 주변 공해상에서 미국과 함께 《북선박나포 및 검색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미국에서 참수특수작전연합훈련을, 태평양에서는 대규모함대기동훈련을 벌였다.

또한 7월에도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 《림팩》에 가장 큰 규모의 해상전력을 참가시키고있으며 8월과 9월에도 《한》미일미사일정보훈련, 항공전투연합훈련 등에 참가할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적대외의식과 암살야망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극히 무모하고 무분별한 군사적대결판권이다.

지금 윤석열을 비롯한 남조선호전광들은 저들의 광란적인 북전전행정책을 그 무슨 《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야말로 철면피, 파렴치의 지나친 것이다.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국방력강화조치들은 전쟁 그자체를 방지하고 존엄과 국권수호를 위한 당위적인 자위적권리이다. 이것이 남조선에 대한 《위협》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더우기 저들은 공화국을 《주적》으로 삼고 무력충격과 전쟁발상상태에 열을 올리면서 상대방의 자위적권리를 《도발》로, 《위협》으로 걸고치는 것이야말로 철면피, 파렴치의 극치로서 공화국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고 도발이다.

최악의 놈 겁부터 먹는다 《북의 위협》이니 뭐니 하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망발은 동족을 적대시하는 저들의 대결책동으로부터 오는 근심국민의 집중적인 발로이며 공화국무력의 절대적힘과 군사적강제에 기입한자들의 불안과 공포의 발작증세이다.

물건대 동족에 대한 《선제타격》과 《헌법타격》을 취하며 미국의 핵전략자산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발상

을 그칠새없이 벌리면서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이 낯뜨겁지 않은가. 명백히 말하건대 도발과 위협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대고 하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전쟁연습들은 그 형식과 규모가 어떠한, 그 어디에서 벌리든 철두철미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핵전쟁예비연습이다.

현실은 공화국이 국가방위력을 줄기차게 강화하고있는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강대국, 정면승부는 공화국의 투철한 립장이다.

만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거버되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다하면 비참한 말로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김철성

최근 윤석열패들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서 발생하였던 예민한 사건들을 들추어내면서 《신북풍》몰이에 광분하고있다.

윤석열 자신이 《천안》호마크가 새겨진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돌아치고 서해무장충돌사건과 《천안》호사건, 연평도고격전 또는 군장병들의 유가족, 폐간병들과의 오찬놀음에 이어 《제2연평해전승전 20주년 기념식》이라는 광대극까지 벌여놓은 것이 그르하다.

한편 보수패당은 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해상공무원피살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정보공개를 떠들고 지어 이진 《정부》가 북에 무엇을 주지 않았는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전 《정권》을 북추종세력으로 몰아가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추악한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신북풍》몰이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서 있었던 군사적충돌사건들로 말하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일어난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군사적도발로서 동족대결과 모략에 이끌린 난자들의 추악한 본색과 그 비참한 말로만을 보여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 그때의 사건들을 《북의 도발》로 외치고도 지어 《승전》으로 둔갑하는 놀음까지 벌여놓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아니 두말할것도 없이 공화국

에 대한 적대외, 대결외식을 고취하여 저들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윤석열패당이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북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무슨 《북도발》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미전력사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위한 비렬한 술책인것이다.

돌아켜보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화국과 련결된 사건을 조작하고 《북풍》을 일으켜 반대파들을 탄압하는데 리용하는것은 역대 보수패당의 상투적수법이다.

《천안》호사건만 해도 그

《리명박근해를 함산한 반로동정권》,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다》, 《강고야 쌓이면 다음은 퇴장》, 《세상을 바꾸자!》, 민주로총의 이 목소리는 남조선민심을 그대로 대변한것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세상을 바꾸자!》

《전국로동자대회》를, 9월에는 민주로총산하 공공운수, 보건의료로조결의대회를, 10월에는 대규모총파업을 벌리려는 계획들을 런이러 발표하면서 투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생존권, 로동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투쟁은 친제벌정 가운데 연설자들은 살인적인 물가폭등속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로동관련법개정, 공공기관인양화추진으로 재벌들과 기업들의 이익만 지키는데 급급하고있다고 하면서 임금인상과 로동시간연장 중단, 비정규직철폐, 차별없는 로동권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무두위속에서도 《물가폭등 못살겠다, 윤석열이 책임지라》, 《로동자가 죽어는는 로동개악 저지하자》, 《일하는 사람에게 로동권을》 등의 구호를 웨치며 《대통령실》 주변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지금 민주로총은 7월중순에는 20만여명이 참가하는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의 총파업을, 8월에는 8.15를 계기로

실상 친제벌정책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의 물가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세금을 깎아 시정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부자감세》를 통해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을 《시장친화적 물가관리》로 포장한것이다.

이미전에 윤석열패당은 부자감세, 친제벌적인 경제정책이라는것을 내놓으면서 《법외세 감세》는 《민간주도성장》으로, 《부동산보유세 감세》는 《주거안정》, 《주식양도세 유예》는 《금융혁신》으로 포장한바 있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이런자들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옴바른 그 무엇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것은 썩은 종자에서 싹트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동자들이야 죽든말든 재벌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윤석열패당의 반인민적정치하에서 남조선로동자들의 생명과 처지가 날을 따라 더욱 버랑골로 물릴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국회》후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문제를, 《정부》의 경장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국회》후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문제를, 《정부》의 경장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국회》후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문제를, 《정부》의 경장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국회》후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문제를, 《정부》의 경장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 될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국회》후임위원회의 위원장직접문제를, 《정부》의 경장장악책동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둘러싼 여야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당리당략에 환장한 시정배들에 의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되었으며 정치판은 진흙탕의 개싸움판으로 전락되었다.

하기에 로동자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못살겠다》, 《세상을 바꾸자》, 《웨치면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결연히 나서고있다》

이것은 민생은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폭발이다.

고정길



남조선로동계의 울분 -

《세상을 바꾸자!》

《전국로동자대회》를, 9월에는 민주로총산하 공공운수, 보건의료로조결의대회를, 10월에는 대규모총파업을 벌리려는 계획들을 런이러 발표하면서 투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생존권, 로동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투쟁은 친제벌정 가운데 연설자들은 살인적인 물가폭등속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로동관련법개정, 공공기관인양화추진으로 재벌들과 기업들의 이익만 지키는데 급급하고있다고 하면서 임금인상과 로동시간연장 중단, 비정규직철폐, 차별없는 로동권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무두위속에서도 《물가폭등 못살겠다, 윤석열이 책임지라》, 《로동자가 죽어는는 로동개악 저지하자》, 《일하는 사람에게 로동권을》 등의 구호를 웨치며 《대통령실》 주변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지금 민주로총은 7월중순에는 20만여명이 참가하는 민주로총산하 금속로조의 총파업을, 8월에는 8.15를 계기로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만필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지》

만화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대화》타령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물사모적을 풍가하는 특등매국노》

인원으로 보는 판이한 두 현실

참된 삶의 보금자리

오늘날 지구상 도처에서는 생존의 권리를 위한 각종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있고 재난으로 사랑하는 혈육들을 잃은 통곡소리가 그칠새없다.

하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꿈과 이상이 하나들 현실로 펼쳐지고 행복의 웃음, 노래소리가 끊없이 울리고있다.

지난 4월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례구와 송화거리의 새집들이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남조선과 해외의 인터넷에는 《모든 살림집들이 현대적이고 호화스럽다》, 《마치 부유한 〈호화촌〉과 같은 느낌을 준다. 북이 이런 집을 평범한 근로자들,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글들이 연이어 나왔다.

공화국에서 새집들이는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성정으로 훌륭히 일떠선 새 거리와 새 마을, 새 집들의 눈부신 자태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울리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볼수록, 들을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맞은 첫해에 창건거리가 일떠설 때 적대세력들은 선전용이라느니, 《특권층》을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벌이였다.

하지만 거기에 입사한 사람들은 평범한 인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몸소 찾으시어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신 김정수평양방직 공장 방직공의 가정, 본인은 물론이고 안해와 딸 모두가 교육자인 가정, 남편도 안해도 로동자인 가정... 이들이 바로 창건거리의 주인들이었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일떠세운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례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러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례구 등도 모두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안겨졌다.

당과 국가가 마련해준 호화주택들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방건설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삼지연시가지 거머잡아 불라보게 번모될 시, 군들의 미래상으로 되고있으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술마구락부, 양덕은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

기지도들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는 중요거점으로 되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어머니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속에 복된 삶을 누려가는 장수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제일 불행했음 부모없는 아이들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누려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조진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라고 격정적 경유 노래하며 공화국인민들은 내사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이라고 격정적 경유 노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더욱더 취창한 패일을 마중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되었다.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렴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늘도 감복하는 숭고한 사랑이 있어 전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시기에 도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사랑의 웃음소리가 울렸으니 이런 행복의 요람이 또 어디에 있는가.

진정 공화국의 사회주의야말로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에 안아 보살피주며 행복과 기쁨만을 안겨주는 참다운 인민의 삶의 보금자리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내사 내 나라 세상에서 제일 이라고 격정적 경유 노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더욱더 취창한 패일을 마중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간생지옥, 자살왕국

《우리 아이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너무도 빨리 배운다. 도대체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만드는것인가. 사회의 중심이 될 아이들의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니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것인가.》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에 실렸던 글이다.

이를 통해서도 남조선이야말로 어린이들이 행복보다 불행을 먼저 알게 되는 지옥같은 세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는것은 법적, 도덕적의무이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내세워주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미래와 인권보장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은 보호가 아니라 학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특대형참사의 피해자도, 학대의 피해자도 다름아닌 어린이들이었다.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의 행

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들중 최하위라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남조선의 어린이학대피해사례는 3만 905건으로서 2016년(1만 8 700건)에 비해 월등하게 늘어났으며 2021년 학대로 사망한 어린이는 43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지옥같은 사회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마음의 약성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망울도 터쳐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사회약속에 시들어가고있는 남조선에 과연 미래가 있을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녀성들이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차별시되고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남조선에서 일반녀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에 비해 보통 30%정도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들가운데 맨

마지막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여기에 여성전염병사태이후 전체 녀성의 20%가 퇴직하였거나 실직당하면서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종층수에서는 녀성들의 일상생활이 힘으로 열락되고있다. 녀성들은 법외로 로출되어 항상 두려움을 안고있다. 녀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수 있도록 정책이 뒤받침되어야 한다는 비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첫순가락에 꼽히는 자살지옥이다.

얼마전 열살짜리 아이가 부모와 함께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의 집 우편함엔 빛축축장이 수북이 쌓여있고 아이의 부모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극단적선택을

강요당해야만 했던것이다.

생활고에 비판한 가족의 동반자살은 한두건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이런 참혹한 비극은 계속 일어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남조선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4.5명으로서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총 자살자수 1만 3 000여명중 10대와 20대, 30대의 자살률은 각각 6.5명, 21.7명, 27.1명으로서 2019년(각각 9.4%, 12.8%, 0.7%)보다 더 높아졌다고 한다.

자살한 동기들을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자수가 4 900여명(38.4%)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제생활문제(25.4%), 육체적 질병문제(17%), 가정문제(7%)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자살은 그야말로 하나의 사회적병으로 되고있다.

정치인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로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직위와 나이, 남녀에 구별없이 자살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류행처럼 퍼져가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이 땅은 시체의 집합소로 변해가고있다.》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의 불모지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이다.

하지만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약품과 물자들을 받아안으며 해주지 주인들이 격정에 겨워 터친 심중의 고백이 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한식출입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사회주의대가정!

가정이란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사회의 세포이며 기층생활단위이다. 허나 가정이라는 부름이 한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를 통칭하는 비상한 의미로 사람들의 심금을 무한히 격동시킨적이 그 어디에 있었는가.

사회주의대가정. 이 부름은 오직 조선에만 있다.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정과 사랑의 바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다.

이 땅에 흘러간 잊을수 없는 날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 부모없는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 혈육의 정을 강그리 바치고있는 고마운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하여 걷지 못하는 아이를 수년동안이나 업

고다니며 치료를 해주어 끝내 이 땅을 밟을수 있도록 해준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어낼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미덕이 품이 국풍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외국 한 번은 이렇게 토로하

치게 하고 덕과 정으로 화목하고 전진하는 인민의 락민,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자는것이 당의 구상이고 결심이라고 피력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부모없는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육아원, 애육원건설에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짜 꽃피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렇다.

사회주의대가정, 비록 일곱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과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실려 있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의 현명한 령도따라 삶의 보금자리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더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조선식사회주의에서 기본은 사랑과 믿음의 관제, 사회성원들사이의 동지적단결과 호상협력의 관계이다. 이 관계로 하여 조선은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다. 누구나 바랐지만 누구도 이루지 못한 참다운 인간관계, 그것은 김정원수님님께서 펼쳐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에 그 근원을 두고있다.》

좋은 말이다.

무성한 거목에는 깊은 뿌리가 있기마련이다.

세월과 더불어 이 땅에 차민치는 덕과 정,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끌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늘의 엄혹한 국난을 뚫고나가는 격동의 모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안아온 경이적인 화폭이다.

인민들 누구나 가슴후덥게 새겨안지 않았던가.

온 사회에 덕과정이 차민

그 얼마였고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잠 못이루시며 그이께서 해제가신 위민현신의 장정은 그 열마진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거창한 설계도도 펼쳐주시었다.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존중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사랑의 불사약을 전염병을 앓고있는 대상대들에게 안겨주시는 뜨거운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러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 현신의 세계는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미덕과 미풍이 활

짝 꽃피나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그렇다.

사회주의대가정, 비록 일곱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신념과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된 삶을 누리는 공화국인민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실려 있다.

하기에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그의 현명한 령도따라 삶의 보금자리인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더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범

독재문답 재중동포 리영철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의 교육제도를 왜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제도라고 하는가

참다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을 전제로 하며 무료교육은 의무교육의 성과적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비록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교육의 대상에게 과중한 학비를 부담시킨다면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의무교육이 아니며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담보도 없는 형식에 불과한것이다.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자라고있으며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종 학교와 대학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란 말조차 모르고 마음

껏 배우고있다.

공화국에서는 교육비를 나라에서 부담하고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외활동과 실험실습,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이를 위해 공화국에서는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있으며 그것을 해마다 계통적으로 늘리고있다.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돌리지는 무료교육의 혜택은 결국 교육에 돌리지는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사회제도의 성격과 경제

토대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화국에서 실시하는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도 모두 국가부담에 의해 실시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학생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말야 해결해주고있다. 사실 국가에서 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보살해주는 옷값만 하여도 참으로

막대하다.

이렇듯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으면서 그에 토대하여 교육강국, 인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건축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매달리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이렇듯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힘으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경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후대사랑의 응결체 - 《꽃망울》제품

공화국의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꽃망울》에기껏가루에 대한 호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꽃망울》에기껏가루를 비롯하여 어린이영양제품들을 먹어서 그런지 아이의 영양상태가 좋고 잘 자고있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체질과 생리적특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젓가루제품들이 있어 정말 좋습니다. 어린 딸이가 일곱달쯤했는데 에기껏가루(아장아장)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 * * * *

《꽃망울》제품이 인기를 모으고있는 비결을 알고싶어 얼마전 우리는 어머니공장으로 널리 알려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다.

우리는 차승철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에기껏가루직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현장에 들어서니 갖가지 포장용기에 담겨진 여러가지 젓가루제품들이 흐름선을 타고 줄지어 나가고있다.

생산되는 젓가루제품들의 종류만 해도 10여종이 넘는다고 하면서 차승철기사가

그는 종업원들모두가 후대사랑을 꽃피워가는 남다른 긍지, 자기 자신들에게 먹일 젓가루제품을 생산하는 심정을 자아내어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에기껏가루제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도 제품의 영양성분포함량을 높이기 위해 사색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미려한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꽃망울》제품들에 어린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자욱 자욱이 어려웠다.

돌발적인 엄중한 방역위기가 조성되었던 지난 5월 너도 갑자기 들이닥친 상심박의 어려운 시기여서 안라까와 하면서도 누구나 섣뜻 바라지 못했던 에기껏

가루, 암가루제품까지 관심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에기껏가루와 암가루를 공급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잊을수 없는 날들이 떠올러오는 격정속에 떠올랐다.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 줄기차게, 더 뜨겁게 호르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제 품마대에 정성들여 담아가는 이곳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에기껏가루제품들이 인기를 끌고있는 비결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꽃망울》제품들, 진정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단순한 식료품이 아니라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자애로운 품에 안아 키워주고 보살피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의 첫물이었다. 그 사랑이 있어 어떤 광풍속에서도 구김없이 더 활짝 꽃피어 이 땅의 꽃망울들의 창창한 앞날을 가슴부듯이 그려보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뜻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청암동토성

평양의 역사유적들을 돌아 보는 우리의 발걸음은 청암동토성으로 이어졌다.

청암동토성은 대성구역 청암동의 대동강기슭에 위치하고 있었다. 동행한 립금석 평양시민속유산보존사업 청암동토성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청암동토성은 고조선시기에 처음으로 쌓고 고구려시기에 세번 다시 쌓았다고 한다.

청암동토성의 남쪽으로는 대동강, 동쪽으로는 합장강, 북쪽으로는 합장강과 보통강의 지류인 작은 강줄기들이 흐르면서 천연해자를 이루고있어 성방위에 매우 유리하였다. 그리고 성의 동쪽과 북쪽에는 합장강 하류지역의 퇴적층으로 형성된 넓은 벌이 펼쳐져있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였다.

그러나 하면 성의 남쪽면과

동남쪽부분은 대부분 가파로운 절벽이어서 적들이 대안에서 강을 건너 성으로 기어오르기가 어렵게 되어있었다.

그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는 청암동토성이 평지와 산지를 합리적으로 결합시키고 방어와 주민지대전개에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쌓은 것임을 잘 알수 있었다.

우리는 청암동토성에 깃든 가슴뜨거운 사연도 들을수 있었다.

해방후 인민의 첫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사진설이 진행되던 그때 기초건설장에서 토성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건설현장에 나오시



여 종합대학위치가 여기가 좋은 곳이지만 토성자리를 없애고 교사를 지을수 없으니 종합대학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시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장구한 력사의 풍운을 새겨온 청암동토성이 오늘도 굳건히 서있을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세세년전 전해질 뜻깊은 사연을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청암동토성은 더욱 정경이 안겨왔다.

장속영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생산한다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약품생산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모란

봉고려약공장에서는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꾸려놓고 고려약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

적인 힘을 넣고있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약초들에 대한 선별과 절단, 추출, 농축, 제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약품의 질보장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뿐만아니라 압착기, 성형기, 성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성능을 보다 제고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이들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새 제품개발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너삼관절염사약, 백선녀삼사약과 같은 효능 높은 약들도 생산해내고있다.

공장에서는 삼지구엽초 갈과정액, 백리향기침단물약, 마가목기침단물약, 비뚤한 물약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 약품의 질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그러나 하면 물약작업반의 종업원들은 설비의 가동률과 물약생산의 질을 최대로 높이면서도 생산계획을 넘쳐수

행하고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고려약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가는 긍지를 안고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더 질높게 생산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일반적으로 장마철에는 습하고 온도가 높기때문에 몸안에서 생긴 열이 제대로 빠지지 못한다.

결국 물질대사균형이 파괴되어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기능도 약화된다.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병균들의 활동과 번식이 활발히 진행되어 식료품이나 음식물이 빨리 변하므로 식중독이나 소대장염에 걸리기 쉽다.

그러므로 장마철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선 장마철에는 물이 오염될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물을 끓여마시는것이 좋다.

또한 장마철에 미생물과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에서 음식물을 만들고 보관하는데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습한 대기는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병의 악화를 가져올수 있다. 따라서 날이 개이면 창문을 열어 방안공기를 건조시키고 침구류들을 햇빛에 말려줘야 한다.

특히 옷을 잘 말려줘 입어야 한다. 옷은 햇빛에 건조시키는것이 제일 좋다.

햇빛이 내려쬐는 시간에 옷장문을 열어 공기갈이도 자주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집주위환경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

그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온갖 힘과 정열, 지혜와 성의를 다 쏟아부으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지게 됨을 이르는 말.

◇ 지성이면 감천.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이 지극하고 애써 노력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

◇ 약보다 사람의 지성이 낫다.

사람의 병치료에서 약도 약이려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환자에게 기술이 넘어서는 정성임에 경험적으로 이르는 말.

웃미 물고기도 뱀을 흘린다

한 사람이 안해에게 잉어탕을 해먹이려고 장에 나갔다.

《생신한 잉어를 한마리 주시오.》

《자, 이놈을 가져가시라요. 갓 잡은 잉어예요.》

그는 물고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코를 찡그렸다.

《가만, 그런데 뱀새가 나쁘지만. 생신하다더니...》

《그래요. 생신한거예요.》

《뱀새가 나지 않소?》

《아이... 손님한테서도 뱀새가 나느구만요. 뱀새가... 물고기고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왜 뱀을 흘리지 않겠나요?》

사화

엄세영의 결단 (3)

그림 리성일

《레일은 어느 고을로 행차하시러 하옵는지 알고저 하옵습니다.》

《아직 미정일세.》 엄세영은 간단히 대답하였다.

《그러하시오면 괴관하실러인데 며칠간 편히 머무르시다가 다시 떠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기가 출지는 않사오나 그래도 불편하실 일이 생각해보아 조심되오니 루추하오나 소인의 집에 잠시 거처하시어 어떠하옵는지요...》

《글세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그대 그리해도 좋겠지만... 무작정하고 이곳에 머물렀을수야 있나? 속히 삼남일대를 순찰해야 할러인데...》

면 소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이나 거두고있겠사옵습니다.》

《그러하세.》 엄세영은 선유사의 승낙을 받아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선화당에서 물러갔다.

이윽고 선유사는 감사하게 자기 백락서의 집에 가서 있을테니 인차 감영에 있는 군졸 오십명과 걸음이 빠른 좋은 말 한필을 백락서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넌머마십시오.》 전라감사는 선유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부탁을 하는지 물어볼수도 없어 그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넌머마십시오.》 엄세영은 백락서의 집으로 교자를 타고가며 또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한바를 단단히 다졌다.

자기가 한양을 떠나기 전에 들던것보다 실지 전주에서 와서 보니 백락서의 배후세력은 상상하던것보다도 더 굉장하였다.

전주부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라도일대에서 소위 행세한다는 량반들도 돈보따리를 들고 백락서의 집을 찾아

가야만 벼슬을 얻어하며 조정과 지방에서 관직을 가지고 행세하는자들의 감투와 사모가 부지된다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보니 전라감사에서부터 미관말까지 이르러까지의 전라도 벼슬아치들은 말할것도 없고 중앙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고관대작들까지도 백락서가 차지하지하는것이 틀림없었다.

《이것이 무엇이나? 무엇때문에 이처럼 되는것이냐? 모두가 백락서의 돈때문이다! 그리고 황제나 황후, 민대감, 대원군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가 돈을 좋아하는 까닭이다. 먼저 돈을 가지고 조화를 부리는 놈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엄세영은 또 한번 마음속으로 맹세하였다.

어느덧 교자가 백락서의 집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엄세영이 교자에서 내리니 백락서는 미리 대기하고있다가 그를 부축하여 사랑방으로 모셔들었다.

엄세영은 아래쪽에 앉아서 장죽(긴 담배대)을 빨면서 몇가지 지방사정을 그에게 물어보았다.

조선화 《량반과 농민》

조선화 《량반과 농민》은 여름날 날들이가던 농민부부가 길가에서 량반행차를 보고 절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당시 불평등한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보여주고있다.

남자는 그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고 농민은 두손을 앞에 모아 절을 하고있으며 갓쓰고 하늘소를 띠 량반은 거만한 눈초리로 그들을 내려다보고있다.

검마잡이는 고삐를 바루 당겨 하늘소를 멈춰세웠으며

뒤따르던 하인은 이들부부가 낮은지 눈웃음으로 반기고

순진하고 소박한 농민부부와 눈웃음지은 하인, 거드름 피우는 거만한 량반 등 매

인물의 표정과 몸가짐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성격과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였다.

대립되는 인간들사이의 첨예한 관계를 표현하면서도 허리굽혀 절하는 농민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것으로

형상하고 그의 허리에 걸린 구렁에서 큰 저울이 빠져져 나온것과 하인의 등에 큼직한 보따리가 매달린것 등을 그려 화면의 단조로움과 긴장감을 덜었으며 무기력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량반에 대한 비양과 조소를 강조하였다.

사회적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높은 기량을 발휘하여 훌륭히 형상한 화가 김득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사기자

백락서는 장지밖에 꿇어앉아서 청산류수같은 말솜씨로 일일이 상세하게 대답하였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한양으로 올라가실 때 이곳으로 지나시면 가지고 가시게 하옵고 안가지고 가시더라도 날마다 인편이 인사오니 넌머마십시오. 한양 솔고개덕으로 보내드리지요.》

《아니, 그럴것까지는 없네. 그저 그래보게지. 오리 백리밖에 술을 날라다 먹는걸!》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가 가르쳐준 서까래라는 뜻에서 《부연》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생겨난 겹처마는 조선식목조건축에서 마치고 날아가는 새가 깃을 활짝 편것처럼 경쾌하고 날씬한감을 주는 아름다운 지붕처미형식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부연과 겹처마가 생겨나게 된 유래

부연은 조선식건축물의 지붕처마를 이루는 기본부재인 데 서까래우에 덧붙이는 네모난 긴 부재를 말한다.

건물에서 지붕을 서까래만으로 이었을 때에는 훌륭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말을 별로 시답지 않게 들었던 도목수의 머리속에는 갑자기 짧아진 서까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고 그에 기초하여 새로 창안한 부재의 이름을 며느리

말 못하고 고민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나중에는 침식까지 잃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고민하는것을 본 며느리의 거드름되는 살뜰한 물음에 도목수는 할수 없이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시아버지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은 총명한 며느리는 품뭇머 생각해보다가 짧아진 서까래를 이으려고 하지 말고 서까래우에 짧아진 처마길이 만큼 작은 서까래를 덧대주면 되지 않겠는가고 여쭙었다.

본사기자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압록강제 1중학교 강좌장 선우정철

을 구축하고 우수한 교수방법들과 프로그램을 연구 도입함으로써 전국적인 수확과경연우수자들과 국제수학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수상자들을 비롯 많은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키워냈으며 도적인 교수경연들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지난해에 그는 학생들이 능

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할수 있도록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수준을 더욱 높여 학교의 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나날 그는 10여개의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원물창안증을 수여받았고 10월8일모범교수자대렬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도 참가하였다.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후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후대교육사업에 순결한 망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것으로 하여 그는 2021년 공화국 10대최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